

# 달라진 서구...10년 만에 '해빙무드'

### 노사간 협상 기대...구청장 "노조도 구성원" 노조 "10년 묵은 과제 지금이라도 풀어야"

민선 7기 광주 서구청이 달라지고 있다. 구청장과 노조가 한 곳에 모여 직원복지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등 10년 만에 '해빙무드'로 돌아선 분위기다.  
광주 서구청과 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는 지난달 20일 극적으로 1차 교섭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 2차 교섭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진 노사간 1차 교섭자리에서 서대석 서구청장이 노조를 구성원으로 인정하

면서 적극적으로 노조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를 내비쳐 교섭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구청과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구청 3층 상황실에서 1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노조와 서구청 간의 단체 교섭이 이뤄졌다. 이날 의결되지 못한 안건들은 오는 11일 2차 본교섭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교섭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9년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가 되며 협상대타블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나온 지 10년 만에 마련된 자리였다.  
이후 지난 민선 6기, 노조와 서구청 간 힘겨루기가 심화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장장 5시간에 걸친 끝장토론도 벌였지만 그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점은 BSC(성과관리시스템) 폐지·무분별한 고소고발 취하, 과로사한 공무원 순직 인정 등이 있었지만, 단 하나의 안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아무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그러다 지난 6월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서대석 서구청장이 노조와의 대화를 선택하며 10년 만에 교섭자리가

마련됐다.  
서청장은 "주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서 상생 협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단체 교섭에 임하겠다"며 "노조가 원하는 것은 모든 직원들의 복지인 만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받아들여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공무원 노조가 법외노조가 되며 교섭대타블을 마련하지 못한 채 흘러간 세월이 10년이 됐다"며 "서청장이 그동안 묵혀왔던 안건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노조도 구청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더 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 빛여울초교 내년 3월 개교 시교육청, 수완중 연말 착공

광주 남구 효천1지구에 건설 중인 가칭 효천(1)초등학교가 '빛여울초등학교' 이름으로 내년 3월 1일 정식 개교한다.  
지난달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18 개교심의위원회에서 효천1지구 내 신설 초등학교 이름을 빛여울 초등학교로 하고, 개교 시기를 2019년 3월로 결정했다.  
학부모·시의원·시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개교심의위원회는 공모한 교명 25건 중 지역성·상징성 등을 고려해 광주를 상징하는 '빛'과 효천 지구 내 대촌천을 뜻하는 '여울'을 포함한 이름을 교명으로 정했다.  
교육청은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담은 광주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빛여울초교는 34학급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부지면적 1만2,214㎡, 건축면적 3,212㎡, 연면적은 9,714㎡다. 지난해 12월 27일 착공했으며 내년 1월 20일 준공이 목표다. 특수학급 1학급과 3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도 포함돼 있다.  
또 광주 광산구에 들어서는 가장 수완(2)중학교는 올해 말 착공한다. 2020년 3월 개교가 목표다. /고광민 기자



거리극 '총동' 관람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거리극 공연에서 시민들이 극단 몸풀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움직여야 지속되는 고달픈 삶의 하루를 보여주는 '총동'을 관람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광주·전남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47명 사망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4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679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전남에서는 921건이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는 광주 1,226명, 전남은 1,516명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

운전 사고는 해마다 줄어들었다.  
광주는 2015년 861건이 발생해 12명이 숨지고 1,645명이 다쳤으나, 2016년에는 762건이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502명이 다쳤다. 전남은 2015년 1,189건이 발생해 사망 53명, 부상 2,038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907건에 사망 26명, 부상 1,503명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강병은 기자

# 조선대 해외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논란

### 베트남 국적 학생 5명 '시간제 취업' 적발

조선대학교가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시간제 취업을 알선해 적발됐다.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유학생 유치에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다.  
지난달 3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조선대에 따르면 최근 조선대 유학생 베트남 국적 학생 5명이 불법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지난 4월께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 5명이 지난달 13일 담양의 한 농공업체에서 일하다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된 것.  
이들 유학생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이나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소는 유학생들에게

10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고, 업무와 불법으로 시간제 취업에 적발된 유학생 5명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대학측이 유학생들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유학생 5명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생활비 등이 떨어지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취업 업체를 소개했다.  
조선대 측은 "불법인 줄 모르고 학생들의 사정이 딱해 취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 이탈을 막기 위해 한 일"이라며 "대학 자체 조사결과 추가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유학생 선별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고광민 기자

### '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산구청장 오늘 선고

불법당원모집 혐의로 재판 중인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1심 선고가 1일 열린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1일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오후 1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장 당내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직원 15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

의 숙나물 150박스과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이 공단 직원 등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는 부정경선을 진행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히 김 구청장이 당원 모집을 부탁하기도 했고, 당원을 모집한 지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다. /이나라 기자

### 블랙박스에 목소리 녹음돼 털리

○...10대3명이 새벽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털다 블랙박스에 목소리가 녹음되는 바람에 결국 털리.  
○...지난달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모군(18) 등 3명은 지난 7월 28일 새벽 3시 56분께 북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잠금장치가 안된 차량에서 현금과 명품 선글라스 등 235만원 상당을 훔치다 실명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음돼 불잡힌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치다 서로 이름을 거론하며 잡담하다 녹음된 목소리 때문에 불잡히게 됐다"며 "완전범죄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이었다"고 설명. /김종찬 기자

##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구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문의. 010-3605-5000